지역안전지수 공개후 안전사고 ↓

행안부, 안전 통계 산출 위해 등급 부여
작년 사망자 3.9% ↓ · 건수 2만4천건 ↓

지역안전지수 공개이후 안전사고 사망자와 사고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련 주요통계 산출을 위해 매년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해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등 5개 유형으로 그룹을 지어 1~5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안전수준이 발표되는 분야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다.

행안부가 13일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사망자수를 위해지표로 하는 지난해 화재(291명), 교통사고(4019명), 자살(1만3092명), 법정감염병(2726명) 분야의 안전사고 사망자는 모두 2만1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2만940명보다 812명이 줄어든 것이다.

발생건수를 위해지표로 하는 화재(4만2947건), 범죄(52만7207건), 생활안전분야(15만250건)의 합계건수도 전년 75만4010건보다 4만2447건이 감소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매년 지역안전지수 공개로 지역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우리의 안전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농어촌·섬마을 먹는물 관리 강화

농어촌·섬마을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년간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전국 소규모 수도시설 약 1만3000곳에 대해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라늄의 경우 2014년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돼 지자체에서 연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가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우라늄 수질검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라돈의 경우 앞서 2017~2016년 조사를 완료한 4400곳을 제외하고, 내년 연말까지 검출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수도시설 1000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7700곳은 지자체에서 분석장비를 확충한 후 2019년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뜻한다. 이 시설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주민은 주로 농어촌 및 섬 지역에 사는 약 126만 명으로,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급수 인구의 2.3%에 해당한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전국에 1만 6,667곳이 있으며 이중 약 80%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라돈 등 땅속의 자연방사성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에 대한 먹는물 안전 관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부 농어촌 및 섬 지역 주민들도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위도 잊게 하는 연근 수확 13일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의 한 연근밭에서 농민들이 추위도 잊은 채 연근을 수확하고 있다.

내년부터 대장암 검진 50세 이상 전국민 무료

내년부터 만 50세 이상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을 전국민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민에 대해 무료 암검진을 제공하는 질환은 자궁경부암 외에 대장암까지 2종으로 확대된다.

대장암 검진은 국가암검진 대상(의료급여·건보 하위 50%)는 무료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에서는 가입자 상위 50%에 대해 본인부담금 10%을 부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장암 검진을 위해 실시하는 '분변잠혈반응검사(FOBT·대변검사)'의 본인부담금 10%이 폐지된다.

또 FOBT 실시 후 대장암 이상소견시 진행하는 '대장내시경', '대장이중조영' 등 2단계 검진과 조직검사의 비용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다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별도로 받은 경우,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5년간 대장암검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암검진 질관리 강화를 위해 '검진결과 판정의사 실명제'가 도입된다. 결과 기록지에 의사면허번호와 성명이 기입된다.

또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은 경우 편의제공 수가가 가산된다. 유방암 검진시 맘모그리피(X선 촬영술 중 하나) 수가를 '일괄 4매' 청구하는 방식에서 '편측 2매씩' 분리해 청구가 가능하게 했다.

뉴시스

올 겨울 영산강 첫 결빙… 지난해 比 33일 빨라

광주기상청은 올 겨울 처음으로 영산강이 얼었다고 13일 밝혔다.

강·하천 결빙 계절관측 장소인 영산강 산동교에서 이날 첫 결빙이 관측됐다.

이번 영산강 결빙은 지난해(1월15일)보다 33일 빠르고, 평년(1월6일)보다 24일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발달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의 일일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1~4도가량 낮아져 결빙이 나타난 것으로 광주기상청은 분석했다.

이날 광주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였다.

서은홍 기자

埃, 속옷 입고 바나나 먹은 여가수 징역 2년

이집트 법원이 12일 속옷 차림으로 바나나를 먹는 모습의 뮤직 비디오를 촬영한 여가수 샤이마 아흐메드(25)에게 방탕을 선동했다며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샤이마는 이 뮤직 비디오 공개가 보수적인 이집트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킴에 따라 지난달 체포됐다.

이집트 언론들은 샤이마가 방탕을 조장하고 난잡한 동영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샤이마와 함께 뮤직 비디오를 촬영한 감독에게도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샤이마는 지난달 체포되기 전 "부적절한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죄했지만 이러한 동영상이 이처럼 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집트는 지난해에도 난잡한 뮤직 비디오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여성 무용수 3명에게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또다른 여가수 셰린 압델 와하브도 나일강 물을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노래를 불러 군중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녀는 지난 달 '나일강 물을 먹어 봤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압델 와하브는 나일강 물이 오염돼 이를 그대로 마시면 기생충 감염에 의한 주혈흡충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집트 가수협회는 11일 압델 와하브에 대해 가수 활동을 2개월 간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日 초교에 또 美 헬기 물질 낙하…1명 경상

일본 오키나와의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에 인접한 기노완(宜野灣)시의 후텐마 제2 초등학교에 13일 창문 유리로 보이는 물체가 떨어져 학생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오키나와 방위국은 미군 CH 53 헬기 창문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4학년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 오전 10시께 사방 1m 정도 크기의 창문 같은 것이 떨어져 남학생 1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후텐마 제2 초등학교는 후텐마 미군기지와 담장을 사이로 이웃하고 있고, 당시 상공에는 미군 헬기가 날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대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은 "방위성이 미군측으로부터 후텐마 제2 초등학교에 미군 헬기 창문으로 보이는 물건이 떨어졌다는 연락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주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관계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53 헬기 둘러싸고, 올해 10 월에 오키나와 북부 동촌의 목초지에 1 기가 비상 착륙 해 염상했으며, 13 년 전 2004 년에는 후 텐마 기지에 인접한 오키나와 국제 대학 구내 에 추락 해 화염에 대학 캠퍼스를 비롯해 인근 주택의 지붕과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나왔다.

"LA산불, 노숙자캠프 불법 취사에서 시작"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 주 6개의 주택을 전소시키고 12채를 훼손한 벨에어지구의 단독 산불은 노숙자들이 한 캠프장에서 불법적으로 피운 취사용 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방당국이 12일 (현지시간) 발표했다.

LA 시 소방청 에릭 스콧 대변인은 수사진들이 405번 고속도로 아래 세풀베다 거리 부근에 있는 한 노숙자 캠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냈다고 말했다.

문제의 캠핑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체포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는 말했다. 소방대는 이 캠프장이 있는것도 몰랐지만 다음 산불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캠핑 장소들의 단속을 시작할 것이며 적발되는 대로 경찰에 알릴 것이라고 대변인은 말했다.

지난 주 LA 산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폴 게티 미술관 부근에서도 몇 군데가 동시에 불탔으며 이 불로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다.

노숙자 캠프로 인한 산불 외에 다른 산불들의 원인은 아직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남부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계속 타고 있는 대형 산불들은 12일 바싹 마른 나무 덤불을 타고 해안지대까지 번져나가 현재 거센 불길이 인근 주택가에 옮겨붙지 않도록 소방대가 방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